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6호 [주제 제 25399호] 주제 105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사설

당의 호소 따라 모든 힘을 합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자

우리 당과 조국혁사에는 빼기 할 인민사랑의 서사시가 또다시 수놓아지고 있다. 천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활복도 북부 피해 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담종장위원회 호소문은 지금 전만의 실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2001년 전후의 주력격방함을 북부피해 복구전선으로 전환시키고 군민대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올해 중에 해제자위용로동당시대의 선정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이 우리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은 군대와 인민을 뒤집고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을 끌어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그 고귀한 일심단결이 있어 우리는 참혹한 재난속에서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합경북도의 북부지구에서 해방후 산진관지에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내려 훈신한 대재앙을 입었다.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 다리들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었다.

지금 해당 지역들에서는 긴장한 복구전후가 벌어지고 있다. 큰불피해를 가시기 위한 당시, 국가적인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필요한 레드벨트도 끊어놓았지만 당시에는 그들에게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국가의 일적, 물적, 기술적 재자력을 활용해 북부피해 복구전선에 충동원, 흥진중학도록 한짓과 같은 중대결심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몸싸우자!』는 구호를 끌어 들고나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계단이 턱혀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앞날은 머잖아 밝고 창항하다.

강장위가 닥쳐오기 전에 결속하여 애를 끊어놓은 큰불피해 복구전후와 제는 전례없이 냉대하며 기간도 매우 짧다.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오늘의 복구전후는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천만군민이 일심동체가 된 원래에서만 성과를 것으로 진행해 나갈수 있다. 세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큰불피해 복구전후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릴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인간사랑의 대서사시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질승승화상을 다시금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함복도 북부피해 복구전후는 인민을 위하여 기초한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투쟁이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의 가정에서 생사고리를 함께 하며 피와 살, 목숨까지도 다 바쳐 서로 둘고 위해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품성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한지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 중대사로, 본분으로 여기고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꽂아놓을 수놓아가고 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행진로에 대한 책임과 같은 조선의 사회주의의 제일이라고 격찬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지금 피해지역에 온 나라 인민들의 지성이 어떤 친절한 물들이 끓임없이 보내고자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대재난에서도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당과 같이 인민의 운명을 친절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아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 우리 당에 있어서 큰불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았는 인민들의 생활을 한시마비 안락시키고 그들에게 훌륭한 성과를 마련해주는 것은 중대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국가의 일적, 물적, 기술적 재자력을 활용해 북부피해 복구전선에 충동원, 흥진중학도록 한짓과 같은 중대결심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몸싸우자!』는 구호를 끌어 들고나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계단이 턱혀도 두렵지 않으며 우리의 앞날은 머잖아 밝고 창항하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무궁무진한 활력의 원천이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입이나지면서 당 국가가 인민의 빅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은 이 세상에 없다.

</

자력 자강의 정신력과 사업기풍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

정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밤아름을 더해 개척재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을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밀을 품한 전축인재양성 기지인 평양건축총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최근에 교수사업과 학술연구사업,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학회에서 전제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만대소년단아영소, 중앙동물원 2단계 현대화, 령명거리건설, 평양시체육관건설을 비롯하여 70여 개 대상에 일본식 건축형설설계를 9개 수상건의 전축형설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 당시에 커다란 기쁨을 드리었다. 이 자랑찬 성과속에는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들어쓰고 통하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판문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굳히았다. 이렇게 되어 면밀 대학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교외의 부업지에 종합적인 축사를 건설하고 수원마리의 집집증들을 키우자는 암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많은 일군들이 선뜻 지지해 나서지 못하였다.

얼마 인의는 부업지를 가지고 사로는 어떻게 보장하고 또 종합축사는 무슨 힘으로 건설하겠는가. 땅의 풍토를 어떤 차이와 힘장에서 밟들어야 하는가를 현실로 보여준 혁명적이고 전위적인 일본식이다.

큰걸음을 끼게 한 은관과 일본사

어느 단위나 후방경비부서들이 있고 무역기지들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지 풍업원들이 대한 후방사업에서는 단위마다 현지 기관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되는 후방사업에서 단위마다 생기는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인민경제가 획수행체험 법칙성을 떠는 총회가 따르거나 업적한 산업관제가 적용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수 있겠지만 명백한 것은 후방사업을 대하는 단위의 후방사업과 일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부업지의 단위 축사 및 동에서 수원마리 정도의 집집증을 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 책임일군들에게 허용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둘째 후방사업을 통해 허용한 경험으로 되고 있다.

한국전쟁 후에도 이 대학의 후방사업은 용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부업지의 단위 축사 및 동에서 수원마리 정도의 집집증을 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 책임일군들에게 허용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둘째 후방사업을 통해 허용한 경험이 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둘째 후방사업을 대하는 단위의 책임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식에 차이가 있다. 당시에 책임일군들에게 허용한 것은 후방사업을 대하는 단위의 책임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식에 차이가 있다. 당시에 책임일군들에게 허용한 것은 후방사업을 대하는 단위의 책임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식에 차이가 있다.

일군들이 대체주의와 효율주의에 바빠지다보니 후방사업은 몇몇 경리일군들의 몫으로 대학사업의 위전에 밀려나있는것이

근본원인이었다.

대학당책임일군은 후방사업은 청자히 당책임일군들의 뜻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판문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되어 면밀 대학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교외의 부업지에 종합적인 축사를 건설하고 수원마리의 집집증들을 키우자는 암이 제기되었다.

교육기관에서 한해전까지만 해도 수백m²에 불과했던 축사를 재건 확장하고 집집증마리수를 대폭 늘린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후방사업은 농 정치사업이라는 축사를 건설하고 수원마리의 집집증들을 키우자는 암이 제기되었다.

교육기관에서 한해전까지만 해도 수백m²에 불과했던 축사를 재건 확장하고 집집증마리수를 대폭 늘린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후방사업은 농 정치사업이라는 축사를 건설하고 수원마리의 집집증들을 키우자는 암이 제기되었다.

신심이 없어하는 일군들에게 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니,

하지만 함께 생 각해 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둘째 후방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일군들에게 허용한 경험으로 되고 있다.

당책임일군의 대답한 제의를 모두가 지지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제한된 부지에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 축사설계가 완성되는가

를 걸친 시도를 시도하고

수원마리의 집집증기록을

시작하고 험난한 힘으로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은 북남관계파국의 근원

북남관계의 파국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새 장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전제 조선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그러나 북남관계의 파국은 나날이 심화되고 조선반도에서 혁전생발발의 위험은 날로 떨어져 고조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민에 처한 현 북남관계는 우리 북쪽에서의 미리비님을 놓고 천민사대와 외세의존에 예의를 면하지면서 동족단결을 입증하는 바른해역적파당의 반민족적 망동의 패망에 치달고 있다.

박근혜당의 천민사대, 외세의존 행위는 거제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외세의 대조선자비전략의 몽탕으로 만든 만민족적인 망동이다.

부과 납이 회색하고 단합하여 통일에로 나아가자면 무엇보다도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우리 민족끼리 빠져나온 조선반제 문제, 통일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주의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광모질학으로 북남관계 문제를 언제 가도 해결할 수 없고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집권기간 한 주약한 대미 광물, 외세 주종으로 북남관계를 극도로의 국공상태에 몰아놓은 박근혜역적파당의 짜악도 그것을 말해준다.

박근혜 억도는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광고하면서 마지막 저들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대조선자비전략에 추종하여 통족을 모독·압살하려는 허악한 미국군성들이 팔려있었다. 역도가 《대북정책》전반에 대한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미국과의 원로·친인 등에 토대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하고 매번 그것이 그것을 편증해주고 있다.

미래들은 미국이 《인권》 모략의 북통을 두드려면 당장 《북인권법》 제정이나 《북인권사무소》 설치나 하고 맞장을 불어내면 《북해로기유도》나 《제재 강화》나 하고 광고되며 미리비님을 불어내면서 반통화국에 소동에 광고하였다. 미리비당이 여기저기 풀어놓았다. 《북해로기유도》는 미국의 지향에 따라 당시 많은 구성을 내고 강짜를 부리면서 대화요를 외면하고 나중에는 특설해당을 고맙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마련되었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판계개선의 소중한 기회가 막혀졌고 불신과 대결의 불을 주구하는 제국적들의 주약한 본색을 드러내보였다.

최근 미리비들이 《선 백호기, 후 대회》에서 주제넘은 망발을 워치면서 《북해로기》 속에 광고되었는 것 도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문제를 구설로 북남관계의 파국을 지속시키는 미리비당의 탈모를 뛰어내려고 있다. 유기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온기가 사그라지고 대결의 싸늘한 망기만이 감도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천민사대, 외세 주종이 민족의 혼란과 단합에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았다.

박근혜당은 《강력한 통령》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협력의 온기가 사그라지고 대결의 싸늘한 망기만이 감도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천민사대, 외세 주종이 민족의 혼란과 단합에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았다.

박근혜당은 《강력한 통령》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협력의 온기가 사그라지고 대결의 싸늘한 망기만이 감도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천민사대, 외세 주종이 민족의 혼란과 단합에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았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의 출현 이후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하고 판계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대조선자비전략에 추종하여 통족을 모독·압살하려는 허악한 미국군성이 팔려있었다. 역도가 《대북정책》전반에 대한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미국과의 원로·친인 등에 토대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하고 매번 그것이 그것을 편증해주고 있다.

제 사회의 한결 같은 규관과 문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미국의 대조선자비전략 실현의 물건대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박근혜역적파당의 반민족적 망동은 국도에 달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세계가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밖에 북남관계의 세도로 풀릴 줄 알았던 국도에 달하고 있다. 그 때 그에는 아랑곳없이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이라는 무언가를 벌리고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북한해전에 라작현에 광문한 원자의 역적무리가 바로 막근혜당이다. 외세를 통해 얻고 동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남관계를 해체해 남조선당국에 물어버린 막근혜역적파당의 만고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쟁수할 수 없다.

박근혜당은 《친미사대, 외세의존 행위는 미국의 대조선자비전략의 혼란과 단합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협력의 온기가 사그라지고 대결의 싸늘한 망기만이 감도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천민사대, 외세 주종이 민족의 혼란과 단합에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았다.

박근혜당은 《강력한 통령》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협력의 온기가 사그라지고 대결의 싸늘한 망기만이 감도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천민사대, 외세 주종이 민족의 혼란과 단합에 얼마나 위험한 독소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았다.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의 출현 이후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하고 판계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들판한 국도에 달하고 있다. 그 때 그에는 아랑곳없이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이라는 무언가를 벌리고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북한해전에 라작현에 광문한 원자의 역적무리가 바로 막근혜당이다. 외세를 통해 얻고 동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남관계를 해체해 남조선당국에 물어버린 막근혜역적파당의 만고죄악은 그 무엇으로도 쟁수할 수 없다.

제 중 조선인총련합회 경축 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제 중조선인총련합회가 8일 중국 심양에서 경축 모임을 진행하였다.

김 일 성 대 원 수 님과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공화국의 통장과 관방발전에 쌓아올리신

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 사람 같이 회복되었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김일성대원수님들께서 개최하게 되었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워업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 중조선인

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김일성대원수님

